

분화성 갑상선암 환자에 있어 술후 혈청내 갑상글로블린 Level의 임상적 의의

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,¹⁾ 내과학교실²⁾

김성동¹⁾ · 양영준¹⁾ · 임영창¹⁾ · 김진환¹⁾ · 박일석¹⁾ · 노영수¹⁾ · 김현규²⁾

서 론 : 갑상선암의 재발을 진단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온 술 후 갑상글로블린의 level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아직까지 정확한 임상적 의의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암 환자에서 갑상선 전적출술 후의 혈청내 갑상글로블린 level의 임상적 의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 법 : 갑상선 유두상암종으로 갑상선 전적출술을 받은 43명(평균연령 48세)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수술 1개월 후의 갑상글로블린의 level에 따라 갑상글로블린이 2ng/ml 이하인 경우를 group 1, 2 이상 10 미만인 경우를 group 2, 10 이상인 경우를 group 3로 나누어 환자의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성별, 연령별 분포, 종양

의 크기, 전이림프절의 유무, 추적관찰 기간, 술 후 1개월째 시행한 전신방사선요오드(¹³¹I) 스캔결과 및 ¹³¹I 치료용량 및 원격전이여부와 비교하였다.

결 과 : 수술 1개월 후에 측정된 갑상글로블린의 level은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,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,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, 그리고 ¹³¹I 치료용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.

결 론 : 갑상선암 환자에서 갑상선 전적출술 후 혈청내 갑상글로블린의 level은 갑상선암의 재발을 진단하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갑상선암의 예후를 판정하는 인자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